

Methane 가스 배출감축 본격화

14개국 배출감축 공동노력 합의 ... 원유·석탄 채굴이 문제

미국과 중국·일본·러시아 등 14개 나라가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(Methane)의 배출을 줄이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<니혼게이자이신문>이 보도했다.

14개국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장관급 협의를 열어 원유와 석탄을 채굴할 때 발생하는 메탄의 배출을 억제하고 천연가스관의 메탄 누출 방지 △누출된 가스 회수 △폐기물처리 때 발생하는 메탄의 효율적 이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.

또 자금을 거출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개발도상국과 관련기업 등에 개발된 기술을 제공할 방침이다.

메탄 배출량은 2000년 기준 65억톤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6%를 차지했으며 배출량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12/10>